



귀뽕맘땃

- * 글 : 난별
- * 그림 : 노은주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04쪽
- * 대상 : 초등 저학년

· 책 소개

‘귀’는 ‘뽕’ 뚫리고 ‘맘’은 ‘땃’ 알게 되는 약을 찾으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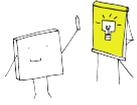
‘한 번 말하면 듣는 약 어디 없을까?’ 누구나 이런 생각 한번쯤은 해 봤을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부모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이 책 속의 주인공 윤하는 엄마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자나 깨나 일밖에 모르는 일벌레 엄마는 윤하는 무슨 얘기를 할라치면 항상 말을 끊었어요. “공부해.” “혼자 놀아, 다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뿐인가요? 비가 와도 우산을 가지고 마중 나와 주지 않고, 심지어 딸의 생일도 깜빡 잊어버렸죠. 윤하는 엄마가 자기 말을 좀 들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마법처럼 백발의 파마머리 할머니 약사가 윤하는 엄마를 위한 약을 지어 주었어요. 그게 바로 귀는 뽕 뚫리고 맘은 땃 알게 된다는 ‘귀뽕맘땃’ 약이었지요.

윤하는 엄마는 이 약을 먹고 달라졌을까요? 만약 약효가 있었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졌을까요? 부작용은 없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약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귀뽕맘딱》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2. 《귀뽕맘딱》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한 번 말하면 듣는 약 어디 없을까?’

이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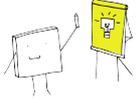
엄마, 아빠에게 똑같은 말을 자꾸 하다 입을 달아 버린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지요. 사실 어른도 아이도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내가 불렀을 때 조금 더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

내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내 질문에 () 대답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귀는 뽕 뚫리고 맘은 딱 알게 되는 약,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런 약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열어 볼래요?

- 1) 귀뽕약은 어떤 약인가요?
- 2) 괄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내 질문에 누군가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지 생각하며 적어 보세요.
- 3) 귀뽕약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나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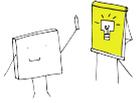
독서 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을 즐기며 읽기

- 공감하는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내용 정리하며 읽기
- 자신의 생각을 쓰며 읽기
-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떠올리며 읽기

1. 《귀뽕맘딱》을 읽으면서 공감하거나 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등을 정리해 봅시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 (가) • 내 비행기만 운동장 바닥으로 ①곤두박질치잖아.
 • 교실에 있는 책은 아주 ②나달나달해. 나도 열 번 넘게 읽었으니까.
 • "으으으, ③악바리!"
 • 희재도 연우 말에 ④맞장구를 치는 거야.
 • 남편 없이도 아이랑 ⑤알콩달콩 잘 살 자신 있었어.
- (나) 이제는 엄마가 나한테 관심 없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들지 않아.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보세요.

① 곤두박질

•

㉠ 아기자기하고 사이좋게 사는 모양.

② 나달나달

•

㉡ 여러 가닥이 자꾸 조금 어지럽게 늘어서 흔들리는 모양.

③ 악바리

•

㉢ 좋지 못한 상태로 급히 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맞장구

•

㉣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

⑤ 알콩달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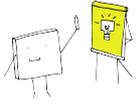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

㉤ 성미가 깔깔하고 고집이 세며 모진 사람.

2. (나)의 밑줄 친 낱말 ‘눈곱’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주 적거나 작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를 참고로, ‘눈곱’을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내 얘기를 들어줘!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공방을 열고 며칠 지나서였어. 학교 수업이 마칠 무렵부터 비가 오는 거야. 조금 내리면 그냥 신발주머니 쓰고 가려고 했어. 그런데 주룩주룩 너무 많이 내리잖아.

“엄마! 우산…….”

“윤하야, 엄마 지금 회의 중. 친구랑 같이 쓰고 와.”

나는 그날 물에 빠진 생쥐가 되었어.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간 뒤였거든. 감기에 걸리지 않은 게 다행이었지.

두 번째는 내 생일이었어. 그날 친구들이 집으로 왔어. 내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그런데 집에 아무 것도 없잖아.

“엄마!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어떡하지?”

“미안. 손님이 갑자기 오셨네. 다음에 놀러 오라고 해. 알았지?”

엄마는 내 생일인 줄도 몰랐던 거야. 나는 부끄러웠어.

“엄마, 오늘 무슨 날인지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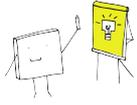
엄마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어. 친구들은 안쓰러운 얼굴로 돌아갔지.

나는 그날 울다가 잠이 들었어.

(나) 엄마랑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기억도 안 나. 그건 쉬지 않고 울리는 전화 때문만은 아니야. 전화가 오지 않는 시간에도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나하고 얘기하는 게 싫은가 봐.

1. (가)에서 윤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생일 파티에 간 윤하의 친구가 되어 윤하를 위로하는 말을 써 주세요.

2. 내가 윤하라면 어떻게 엄마와 대화했을 것 같나요? 엄마와 대화할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너무 잘 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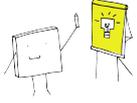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약 때문인지 요즘 네 목소리가 정말 크게 들려.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전에는 들릴 듯 말 듯 해서 대답이 망설여졌거든.”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 지금껏 나는 엄마가 내 말을 다 듣고도 대답을 안 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 작게 이야기해서 그랬나 봐.

(나) “벌써 밤이다. 엄마, 나 영어 숙제!”
 내가 동동거리니까 엄마가 내 얼굴을 보며 씨익 웃었어.
 “이왕 쉬는 거 숙제도 쉬자아아아!”
 엄마는 내 옆구리에 손을 넣고는 마구 간질였어. 나는 간지럼에는 못 당하거든.
 “아잇, 쫘! 그만해! 엄마는 내가 창피 당하는 게 좋아?”
 엄마는 서운했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방으로 들어갔어. 나는 쪼르르 따라 들어가서 알랑거렸지.
 “엄마, 최대한 빨리 하고 올게, 응? 엄마아아!”
 “칫. 알았어. 나 잠들기 전에 와야 해.”
 가슴이 울렁거렸어. 달라진 엄마가 정말 좋은데 이상하게 불편해. 이런 내 마음을 누가 알까?

1. 엄마가 요즘 하윤이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나)에서 엄마와 하윤이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3. (나)에서 하윤이는 엄마가 달라져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요?

좋은 점	불편한 점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마음을 들어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처음에는 정말 귀가 땡 뚫린 것 같았어. 흐릿하던 네 말이 또렷하게 들렸거든. 덕분에 우리 많이 가까워졌잖아, 그치?”

나는 고개만 까딱 했어. 엄마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깜빡하고 약을 두 알 먹은 날이었어. 이상하게 네 목소리가 자꾸 머리에서 울리는 거야. 나는 네가 너무 크게 말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널 보니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 네 마음속 말이 들리는 거였어.”

나는 있지도 않은 비밀을 다 들킨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

엄마 말을 듣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났어.

(중략)

‘외롭지 않게 해 준다더니. 다 거짓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데.’

‘괜찮지 않아. 윤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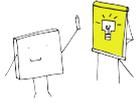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윤하랑 같이 가야겠지? 첫 만남이 병원이라니. 뭐야, 속상하게. 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할 때 연락할걸. 아니야, 그때 엄마도 힘들었어!’

‘보여 주고 싶었어. 둘이서도 얼마나 잘 사는지. 말하고도 싶었지. 같이 살아야만 가족인 건 아니라고. 따로 살아도 엄마가 엄마이듯.’

1. 귀뽕약을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2. 누군가 내 마음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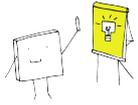
3. (나)의 속상한 엄마를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요? 윤하가 되어 엄마를 위로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



독서 후 토론&논술_ 귀뽕약, 사용해도 될까?

※ 진짜 귀뽕약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을까요? 귀뽕약 사용을 주제로 토론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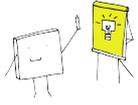
귀뽕약, 사용도 될까요?	
<p><찬성 측 중심 생각> 서로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는 약이므로 좋은 일에 쓰일 것 같다.</p>	<p><반대 측 중심 생각>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p>
<p>근거 :</p>	<p>근거 :</p>



독서 후 창의융합_ 내 맘대로 약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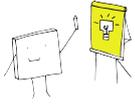
※ 윤하처럼 나도 꼭 필요한 약이 있나요? 어떤 약인가요? 약 이름을 짓고, 모양도 그려 보세요.

약 이름	
효능	
누구에게 주고 싶나요? 왜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요?	
부작용(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어떻게 생겼나요?	



독서 후 창의융합_ 소통 쪽지 만들기

※ 내 이야기를 꼭 들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소통 쪽지를 만들어 전달해 보세요. (소통 쪽지를 자르고, 뒷면에 소통 쪽지라고 써서 전달하면 됩니다.)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 제목은 무슨 뜻일까? 예) 흰머리 할머니는 누굴까? 예) 귀뽕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p> <p>2. 1) 귀는 뽕 툭리고 맘은 딱 알게 되는 약. 2) 예시 답안) 다정하게 3) 예시 답안) 아빠에게 주고 싶다. 아빠는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내 얘기를 잘 듣지 않을 때가 많다.</p>												
3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68 734 1362 1205"> <tr> <th data-bbox="268 734 815 790">공감하는 내용</th> <th data-bbox="815 734 1362 790">공감하지 않는 내용</th> </tr> <tr> <td data-bbox="268 790 815 880">예시 답안) 엄마가 바쁘다고 윤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부분이 공감되었다.</td> <td data-bbox="815 790 1362 880">호태에게 복수를 하려고 호태의 물건을 숨긴 건 잘못된 행동이다.</td> </tr> <tr> <th data-bbox="268 880 815 943">인상 깊은 내용</th> <th data-bbox="815 880 1362 943">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th> </tr> <tr> <td data-bbox="268 943 815 1070">귀뽕약을 먹은 엄마가 윤하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신기했다.</td> <td data-bbox="815 943 1362 1070">윤하, 엄마, 할머니 모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td> </tr> <tr> <th colspan="2" data-bbox="268 1070 1362 1122">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th> </tr> <tr> <td colspan="2" data-bbox="268 1122 1362 1205">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서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싸울 일이 줄어들 것 같다.</td> </tr> </table>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예시 답안) 엄마가 바쁘다고 윤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부분이 공감되었다.	호태에게 복수를 하려고 호태의 물건을 숨긴 건 잘못된 행동이다.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귀뽕약을 먹은 엄마가 윤하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신기했다.	윤하, 엄마, 할머니 모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서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싸울 일이 줄어들 것 같다.	
공감하는 내용	공감하지 않는 내용												
예시 답안) 엄마가 바쁘다고 윤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는 부분이 공감되었다.	호태에게 복수를 하려고 호태의 물건을 숨긴 건 잘못된 행동이다.												
인상 깊은 내용	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귀뽕약을 먹은 엄마가 윤하의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생각한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게 신기했다.	윤하, 엄마, 할머니 모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책 내용과 관련한 경험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 서로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싸울 일이 줄어들 것 같다.													
4쪽	<p>1. ① 곤두박질 ⊖ ② 나달나달 ⊖ ③ 악바리 ⊖ ④ 맞장구 ⊖ ⑤ 알콩달콩 ⊕</p> <p>2. (예시 답안) 나는 너를 눈곱만큼도 좋아한 적 없어.</p>												
5쪽	<p>1. 예시 답안) 윤하야, 속상하지. 우리 엄마도 가끔 중요한 날을 까먹어. 그래도 우리끼리 즐겁게 파티하면 어때? 2. 예시 답안) 엄마에게 대화하고 싶다는 편지를 쓴다. 아니면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엄마와 대화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한다. 어른들은 어른들끼리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기 때문이다.</p>												
6쪽	<p>1. 하윤이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2. 원래 하윤이가 엄마한테 조르면 엄마가 귀찮아했는데, 엄마가 하윤이에게 조르고 하윤이가 귀찮아하고 있다. 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50%;">좋은 점</th> <th style="width: 50%;">불편한 점</th> </tr> <tr> <td>⇨ 엄마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좋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td> <td>⇨ 엄마가 계속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해서 불편하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td> </tr> </table>	좋은 점	불편한 점	⇨ 엄마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좋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	⇨ 엄마가 계속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해서 불편하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좋은 점	불편한 점				
⇨ 엄마가 내 얘기를 잘 들어줘서 좋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	⇨ 엄마가 계속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해서 불편하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				
7쪽	<p>1. 소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들린다. 2. 예시 답안) 내 비밀을 다 알게 될 것 같아 무섭다. 핸드폰 비밀번호나 게임 비밀번호까지 다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3</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예시 답안) 엄마에게,</p> <p>엄마, 엄마도 엄마가 보고 싶죠?</p> <p>보고 싶은 마음은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아요. 할머니를 만나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p> <p>그리고 우리 둘이 지금까지 살아 온 걸 보면 할머니도 분명 엄마를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엄마, 난 언제나 엄마를 응원해요.</p> <p style="text-align: right;">하윤이가.</p> </div>				
8쪽	<p>1. <찬성 측 근거> 서로의 말을 듣거나, 마음을 아는 게 어려울 때가 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아기들의 마음은 알기가 어렵다. 이럴 때 귀뽕약을 사용하면 손쉽게 마음을 알 수 있어 좋을 것 같다. 또 범죄자가 자백하지 않을 때, 경찰이 귀뽕약을 먹으면 범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 수 있어 수사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p> <p><반대 측 근거> 귀뽕약을 팔게 되면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비밀이 손쉽게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범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 생각을 안다는 건 너무 끔찍하다.</p>				

9쪽	약 이름	예시 답안) 화참약
	효능	먹으면 화를 참을 수 있다.
	누구에게 주고 싶나요? 왜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요?	아빠에게 주고 싶다. 아빠는 가끔 운전하다가 화를 낸다. 그러면 옆에 있던 나도 무서워진다. 아빠가 운전할 때도 웃으면서 다닐 수 있게 화참약을 주고 싶다.
	부작용(너무 많이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된다. 어쩌면 종일 웃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겼나요?	화가 날 때, 한 알! 먹으면 그림처럼 다시 웃음이 나와요. (그림 생략)
10쪽	<p>예시 답안) 엄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바빠서 저랑 얘기할 시간도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저는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저랑 얘기하면 엄마도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p> <p>예시 답안) 지은아, 저번에 너랑 싸우고 나서 마음이 계속 안 좋았어. 내가 잘못된 것들도 생각나고. 우리 다시 한번 대화해 보지 않을까?</p>	